



한국양계농협 2대 조합장에 오정길씨 당선



◀ 오정길 조합장

한국양계조합 2대 조합장에 오정길씨가 당선됐다.

한국양계조합은 지난달 29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0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이영재 후보와 오정길 후보가 나선 이번 조합장 선거(선거인 60명, 투표인 60명) 1차투표에서 30:30으로 득표수 과반수 이하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2차에서도 30:30으로 1, 2차 모두 동수가

나와 정관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오정길 후보가 당선됐다.

오정길 후보는 대구에서 송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 대구경북도지회장과 한국양계조합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배상호 전무·최준영 사무국장 퇴임 및 노천섭 신임 전무 취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6월 26일 배상



호 전무와 최준영 충북도본부 사무국장의 영예로운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배상호 전무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본부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준영 충북도본부 사무국장도 지난 5년간 격려와 보살핌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방역본부가 가축방역의 중심적 역할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0일에는 신임 노천섭 전무의 취임식이 있었다. 노천섭 전무는 취임사에서 "양축농가 소득증대



▲ 노천섭 전무

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료채취, 예찰, 예방접종 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방역본부 전 임직원은 양축농가와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기위해 농장 방문시 친절과 정성을 다해야 하며, 가축방역과 위생 등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양축농가의 상호역할을 당부했다. 육군수의병과장을 지낸 노천섭 전무는 경상대 수의학과와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77년부터 '05년까지 28년간 군에서 방역과 수의, 식품검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육군수의병과장 및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닭고기 가격, 단합주요업체 27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4년과 2005년 도계육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6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주도적 역할을 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7억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각각의 과징금 액수는 하림(12억4600만원), 마니커(5억5700만원), 동우(5억8000만원), 체리부로(2억8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르텔에 가담한 총 16개 업체에 대해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과 삼계가격의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외에 가격과 물량 정보를 교환하지 말 것을 시정조치하고 한국계육협회에 대해서도 시장단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 소위'를 구성하여 도계육 및 삼계시세 인상 등의 합의·실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개최 7만여명 운집하여 한목소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5만여명의 농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미경제예속화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한미FTA를 중단하라는 뜻에서 이번 집회가 열렸고, 농축산인들은 한미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다. 농대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과정과 내용을 공개, 일방적인 협상은 중단, 대외협상에 국민의사 반영을 위한 '통상 절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계값 1천1백~1천2백원대 전망

월드컵 특수로 소비가 늘어나 당초 전망치를 훨씬 상회했던 육계가격은 장마, 온도, 습도 등 기후변화 요인과 복 수요에 따라 등락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 농업관측센터는 7월 중 육계가격은 지난해 1천6백원대보다 크게 하락한 1천1백~1천2백원대에서 형성될 것

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육용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매우 높아 물량 조절을 위한 종계 도태가 요구되지만 종계 도태가 지연될 경우 7월과 8월 삼복 경기 이후에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농림부

닭 포장유통 내년부터 의무화

닭·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이 포장 유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08년부터는 모든 닭·오리 도축장과 정육점, 재래시장, 할인점 등 모든 판매장에 대해 포장 유통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가 가축사육 단계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라 농가의 의무교육 시간을 연간 4시간이상으로 정했으며, HACCP기록 작성을 위반한 도축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작년 양돈자조금 “1원내고 20.9원 벌었다”

지난 한해동안 양돈자조금은 1원당 약 21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을 나타냈다. 또 돼지고기 소비촉진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접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에 대해 인식변화를 느꼈으며, 비선호부위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돼지고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화된 소비촉진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자조금 거출률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충남대 박종수 교수)에 의뢰한 2005년도 양돈자조금 운용효과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돈농가로부터 거출·조성된 자조금의 금액은 49억4천900만원으로, 농가가 조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정부의 대응자금 45억원과 이월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100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양돈자조금 1원당 20.9원의 수익증대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돼 지난 2004년도 수익 효과 14.14원보다 6.8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비자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최로 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대의 선진화된 사회에서 건강한 국민식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국방과 같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소비자 농업시대의 농축산식품위생안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양부 박사의 발표에 이어, 윤석원 학장(중앙대학교),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진길부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 곽노성 박사(국무조정실), 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과대학)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영남축산진흥회 양계기술세미나 개최



영남축산진흥회(회장 조옥봉)는 지난 14일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산업의 생산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석 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계질병의 발생현황과 방제방안 논의'를, 김상호 박사(축산연구소)가 '신란계 사양관리와 첨가제'를, 김삼수 박사(농협사료 고객지원부장)가 '육계 사양관리 기술'을, 권동태 사무관(농림부 축산경영과)이 '양계산업 정책방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한국사료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사료협회(회장 김정호)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정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미 FTA 협상과 DDA협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를 위해 사료협회는 보다 창의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세제 개선, 사료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고 사료원료 공동구매 등에도 앞장서겠다.”면서 “사료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 전략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가금(육) 덴마크·헝가리 수입금지지역 포함

농림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 고시 제2006-24호·06.05.15호)개정 고시와 관련해 가금(육)등에 대하여 덴마크·헝가리를 수입금지지역에 포함하고, 캐나다를 타조류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에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고시를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의 '공고·고시'란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

별표1. “1.동물”중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가금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의 “수입금지지역”을 “영국·호주·뉴질랜드·독일·미국·일본·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별표1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중 “마.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을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미국·캐나다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미국·태국·중국·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물 소비형태와 향후 전망 심포지엄 개최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유통교육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주최로 「가축개량 목표 설정을 위한 축산물의 소비 형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현황에 대해 (주)하림 정호석 부장과 (주)풀무원 구민회 부장의 발표가 있었고, 재래닭의 소비형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한협축산 박성진 대표이사, 닭고기의 우수성과 이용증대 방안에 대해 이성기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가정에서는 한달 평균 2.96마리의 닭을 소비하고, 구매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은 신선도, 가격, 브랜드 순으로 구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대용량 보다는 소용량과 대닭의 부분육을 선호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계란은 일주일 평균 가구당 9.5개를 취식하고 있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요리법을 강구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플루엔자 전문분과 위원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6월 30일에 소회의실에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

회 인플루엔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6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에서는 「'05~'0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에서는 「'05~'06 국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및 분리주 특성 분석」을 주제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공동분과위원장인 수의과학검역원의 권준헌 과장(조류질병과)과 질병관리본부의 강춘 팀장(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분과위원회가 되도록 의제 선정을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다음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수해지역 가축질병 예방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속되면서 수해로 인한 가축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지역의 가축질병 예방 등 방역기술지원을 위한 “가축방역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7.19일 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약 10여 일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나 장마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